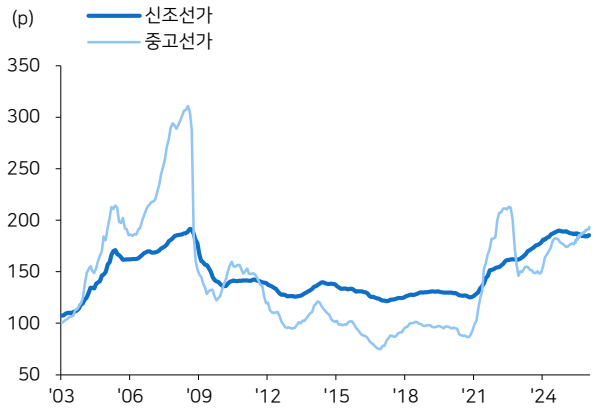
2026. 1. 12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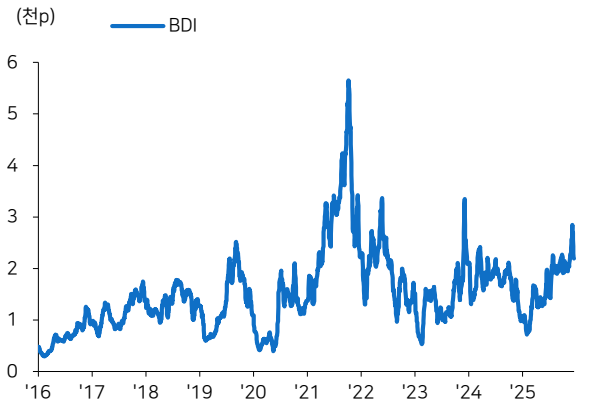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6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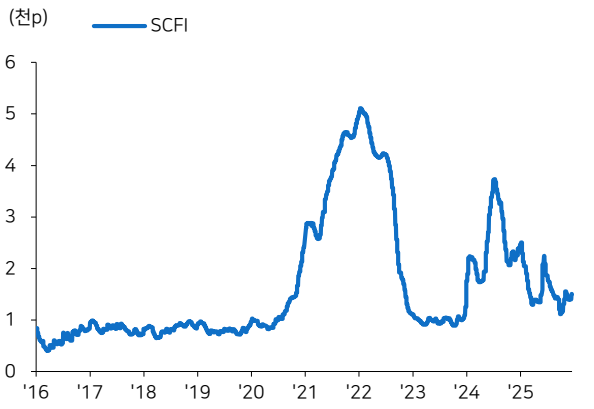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2.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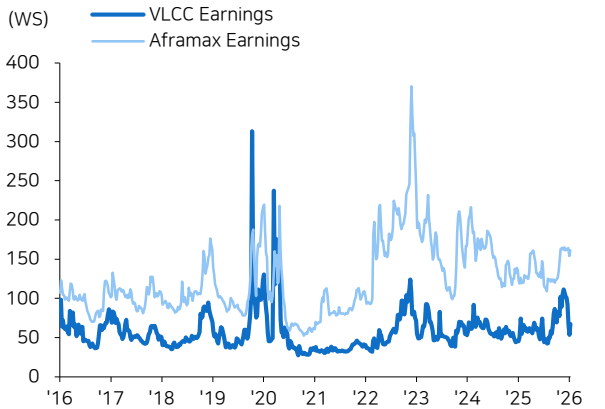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718.0p (-5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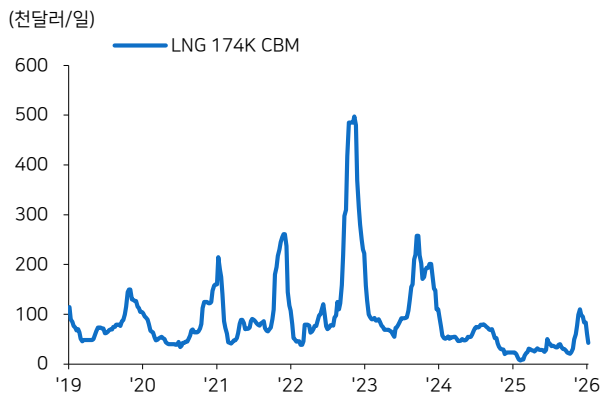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647.4p (-8.9p WoW)




**VLCC Spot Rate** 67.5WS (+14.0p WoW)




**LNG Spot 운임** 42.5천달러 (-18.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 "필리조선소 너무 작아"...미국내 추가 조선소 인수 추진** **서울경제**

한화그룹이 필리조선소 단독으로는 미국 내 상선 · 함정 신조 수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조선소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한화디펜스USA의 마이클 쿨터 신임 대표는 미국 국방부와 수상함 · 잠수함 · 무인함정 계약을 협의 중이며 미국 국방부와 수상함 · 잠수함 · 무인함정 관련 계약을 협의 중이며, 연간 1~1.5척 수준에 머무는 필리조선소의 낮은 생산성을 감안해 약 50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20척 수준으로 건조 능력을 확대하는 계획도 병행 중이라고 알려짐. 업계에서는 한화의 조선소 추가 인수 검토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전해짐. (https://buly.kr/8phXrAk)

**한화, 해벅 AI 와 '美해군 공급' 자율운항 함정 공동개발...필리조선소 건조** **더구루**

한화그룹이 미국 자율운항 인공지능 기업 Havoc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율 무인수상함을 공동 개발해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 뒤 미 해군 공급을 추진하는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전해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Hanwha Defense USA는 한화시스템과 HavocAI와 함께 200피트급 자율 무인수상함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한화오션의 군함 건조 역량과 전투관리시스템 통합 기술, HavocAI의 자율운항 기술을 결합한 실전형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짐. (https://buly.kr/1GKwrNq)

**삼성중공업, LNG 선 中 사업장 건조 유지...저렴한 인건비 활용 '비용 절감' 목적** **더구루**

삼성중공업이 중국 룽칭공장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을 국내 조선소로 들여 LNG 운반선 건조에 활용하고, 중국 공장을 활용한 자재 생산과 하청 전략을 확대하며 비용 절감을 노린다고 전해짐. 영성유한공사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6년 산둥성 룽칭에 설립한 제2의 블록 생산기지로, 현재 중국에 남은 유일한 생산 거점으로 연간 30만t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췄다고 알려짐. 또한 삼성중공업은 룽칭 LNG 단열탱크 공장 투자와 함께 2024년 11월 수주한 suezmax급 탱커 건조를 위해 PaxOcean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 도크와 인력을 활용한 수주 대응과 원가 절감 전략을 확대 중이라고 보도됨. (https://buly.kr/6ByB99R)

**'원자력 권한' 확대 협상 시동...첫 출범 TF "대미 대응 협의"** **중앙일보**

미국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외교부 주도로 한 · 미 원자력 협력 범정부협의체(TF)가 출범했으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해 쟁점 점검과 대미 협의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고 전해짐. 한 · 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농축 ·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처음 명시됐으나, 이를 현실화하려면 한 · 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해 협상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평가가 보도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축 문제를 동업 관점에서 언급한 점과 달리 미국 내 비확산 우려가 여전히 강한 만큼, 정부가 임갑수 정부대표를 중심으로 조기 협상 진용을 갖추고 범정부 차원의 대미 설득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FAepPYT)

**Trump: Oil companies to spend $100 billion on 'jewel' Venezuela** **Upstream**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따르면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복구와 생산 확대를 위해 최소 1,0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진출 기업 선정은 미국이 주도한다고 전해짐. Chevron은 베네수엘라 생산을 하루 40,000배럴에서 240,000배럴로 확대했으며 추가 증산 여력이 언급된 반면, ExxonMobil은 법 · 제도 개편과 투자 보호 없이는 투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짐. ConocoPhillips는 PDVSA를 포함한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원유 활용이 글로벌 공급과 미국 국익에 기여한다고 전망한다고 알려짐. (https://buly.kr/1RFitXb)

**Container carriers ring in Chinese New Year with bumper rates** **TradeWinds**

중국 춘절을 앞둔 수요 급증으로 선사들의 추가 선복 투입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미국 · 유럽 주요 항로 컨테이너 스폿 운임이 최근 일주일간 급등했다고 전해짐. Freightos Baltic Index 기준 아시아-유럽 운임은 feu당 3,000달러로 9% 상승했고 아시아-지중해 운임은 feu당 4,800달러로 20% 이상, 아시아-미국 서안과 동안 운임은 각각 22%, 12% 상승했다고 알려짐. 다만 물동량이 전년 대비 10% 낮고 선복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운임 상승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스폿 운임 하락 예상이 보도됨. (https://buly.kr/6iiSKH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